

2025 새해 이렇게 **장세일 영광군수**

“햇빛·바람 기본소득 구체화...지속가능 소득체계 구축”



민생지원금·상품권 발행 확대·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회복 최선 장애인 복지타운·지역자활센터 증·개축 등 복지 기반 대폭 강화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이라는 군정 구호에 맞게 군민 행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16일 광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군민 모두가 발전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득 체계를 구축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장 군수는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의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제도 운용의 근거를 마련한 상태”라며 “군민조합 지정 및 지원을 통해 모든 주민이 공유자원 개발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구체화해 군민 모두가 발전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득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 군수는 새로운 영광 첫 조직개편을 통해 전

담조적인 기본소득 상생T/F를 구성했고, 이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발굴과 지급방안 등 영광형 기본소득 모델을 정립해 영광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속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의 여파로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비를 되살려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성장 동력을 강화해 영광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침으로 전 군민에게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안정 지원, 묘량농공단지 기업 유치 등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e-모빌리티(전기동력 기반 운송수단) 수출지

원, 투자 선도지구 기반 시설 조성, 청정수소 산업 육성, 무탄소 에너지 실증연구단지 구축 등 스마트 모빌리티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린다.

군민의 행복한 삶 지원을 위해 어르신 복지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어르신 건강관리, 돌봄, 문화·여가 시설을 아우르는 ‘영광형 보건·복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경로우대 목욕이용권과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확대한다.

온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친화 도시로 변화시키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청년육아나눔터 운영, 청년 마을 주거 공간 조성, 취·창업 지원, 어린이 축제와 영광형 키즈카페 조성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가족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또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청년 마을을 주거 공간 조성, 취·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 중심의 성장 기반을 견고히 해 줄 ‘미래교육재단’ 출범을 비롯해 공설주요공원 개원, 장애

인 복지타운 증축, 지역자활센터 증·개축 등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영광 기반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관광산업은 종교 순례 테마 관광 명소화 사업, 백수 해안 노을 관광지 조성, 불갑사 관광지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 특히 관광객 추가 혜택(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관광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군정의 모든 가치 기준은 군민의 행복”이라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살고,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나는 영광을 만들기 위해 100여 공직자와 함께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태풍이 불면 어떤 이는 답을 쓰고, 어떤 이는 풍자를 단다는 네덜란드 속담처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군정에 혁신을 더하고 군민과 함께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영광=김정원 기자 kw@kwangju.co.kr

해남군,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농업연구단지 조성 박차

대응센터, 연내 착공 2027년 개관 연구단지, 국내 최대 100ha 규모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의 선도 지자체를 지향하는 해남군이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농업연구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삼산면 평활리 일원 3ha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사업으로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 정부 공모에 선정됐으며, 오는 2027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기본계획 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성부지를 매입했으며, 지난해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연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향후 센터는 기후 관련 데이터 관리 및 연구 등 민간 실증을 통한 탄소감축·적응관련 정책지원, 농업인·소비자 교육·홍보 등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거점 시설로 운영된다.

해남군은 또 인근에 국내 최대인 100ha 규모의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군 농업연구단지를 연계한 클러스터에는 고구마 연구센터,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과학영농 실증단지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와 함께 삼산면 상가리 일원 21ha 면적의 농

업연구 2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1단지가 대응센터 관련 연구관 시설 설립 등 집적화된 농업연구단지에 중점을 뒀다면 2단지는 연구, 유통, 생산 관련 시설 등 농업 관련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농업의 핵심 거점이 될 농업연구단지 조성의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면서 “농어촌 수도, 해남의 비전이 농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신산업 전환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을 모색하는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IWPG 목포지부, 현혈의 날 맞아 현혈 캠페인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목포지부(지부장 김선아)가 협력 단체(사대한국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서부 봉사관 회원들과 함께 현혈의 집 목포센터 일대에서 현혈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매월 13일 현혈의 날을 맞아 거리에서 현혈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 새로 이전한 현혈의 집 목포센터의 위치를 시민들에게 소개하며 현혈 참여를 독려했다.

IWPG 목포지부는 앞으로도 현혈의 날을 비롯한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아 지부장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나눔,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아가 인류를 살리는 길이다”며 “진정한 평화도 이러한 작은 실천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여성들이 더욱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WPG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글로벌보통국(DGC)에 등록된 세계적인 여성 NGO다. 122개국에 114개의 지부와 회원이 있고 66개국에 730여 개의 협력단체가 있다. ‘지속가능한 세계 평화 실현’을 비전으로 세상에 필요한 연대 확산, 평화 문화 전파, 여성평화교육,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법제화 지지와 촉구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진도군, 공공 비축미 특등 비율 광주·전남 1위

고품질 쌀 생산 위해 60억원 지원

진도군이 공공 비축미 매입의 특등 비율이 광주·전남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진도군은 지난해 여름에 내린 두 번의 집중호우와 비별구 피해에도 불구하고 진도군 공공 비축미의 특등 매입 물량이 51.7%인 7만3669가마로 광주·전남에서 특등 비율 1위를 달성했다.

진도군은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품질의 쌀

을 유통하기 위해 ‘쌀 생산 농가 수매보전 지원금’ 20억원과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33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지역 쌀 품질 유지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군은 또 농가별 수매가 가능한 잔여 물량을 파악한 후 전남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하는 수매 물량 외에 1만8081가마를 추가로 확보, 수매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수해와 비별구 등으로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해 애써 주신 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계속된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잠긴 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